

<서평>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Rainer Albertz

Biblische Enzyklopädie 7, Stuttgart: Kohlhammer 2001, 344p.

배희숙*

독일 뮌스터 대학(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구약학 교수인 라이너 알베르츠의 책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는 열두 권으로 기획된 *Biblische Enzyklopädie*의 일곱 번째 책이다. *Biblische Enzyklopädie*는 성서학의 최근 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성서의 역사적 자리를 찾아내어 독자들에게 성서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서 전승의 초창기부터 히브리, 기독교 성서가 나오기까지의 긴 시대를 열 두 시기로 나뉘어 서술한다. 각각의 책들은 (I) ‘성서가 보여주는 시대상’, (II) ‘역사’, (III) ‘문학’, (IV) ‘신학적 성과’라는 기본 도식에 따라 각 시기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밝혀주고 있다.¹⁾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잠시 알베르츠 교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 장신대 교수, 구약학

- 1) 이 시리즈에 관한 정보는 www.kohlhammer.de에서 얻을 수 있다. 알베르츠의 *Die Exilszeit*는 램케(N.P. Lemche)의 *Die Vorgeschichte Israels*(1996), 프리츠(V. Fritz)의 *Die Entstehung Israels im 12. und 11. Jahrhundert v. Chr.*(1996), 디트리히(W. Dietrich)의 *Die frühe Königszeit in Israel*(1997), 그리고 슈어스(A. Schoors)의 *Die Königreiche Israel und Juda im 8. und 7. Jahrhundert v. Chr.*(1998)에 이어 다섯 번째로 출간되었다.

라이너 알베르츠(1943-)는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1972년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 교수의 지도 아래 “Weltschöpfung und Menschenschöpfung bei Deuterocesaja, Hiob und in den Psalmen” (제 2이사야, 욥, 시편에 나타나는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1977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Religionsinterner Pluralismus in Israel und Babylon”(개인 신앙과 국가 종교. 이스라엘과 바벨론 종교의 다원주의)라는 제목으로 교수 자격 논문(Habilitation)을 썼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강사(Privatdozent)와 교수로 강의를 하다 1983년부터 1995년 윈스터 대학에서 부르기까지 알베르츠는 지겐(Siegen) 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두 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대작 이스라엘 종교사는 이 시기에 출판되었고,²⁾ 이 책에 대하여 1995년 성서 고고학회(Biblical Archaeological Society)는 저자인 알베르츠 교수에게 출판상을 수여하였다.

윈스터 대학에서 알베르츠 교수는 “고대 근동의 종교사와 문화사 연구를 위한 학제 간 연구팀”(AZERKAVO)을 구축하는 일에 참여하여, 문화와 관련된 학문 분야(개신교 및 카톨릭 신학, 고대 역사, 고전 철학, 고대 근동학, 이집트학, 고고학, 비잔틴학, 사회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과 함께 신학과 고대 학문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서 2000년에 특별 연구 영역이 탄생하게 되는데 “Funktionen von Religion in antiken Gesellschaften des Vorderen Orients”(고대 근동 종교의 사회적 기능)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 연구 활동의 책임

2) Albertz Raine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n Zeit. Band 1: Von den Anfängen bis zum Ende der Königszeit; Band 2: Vom Exil bis zu den Makkabäern*, Grundrisse zum Alten Testament, ATD Ergänzungreihe Band 8;1, 2, 2nd ed (Göttingen: Vandenhoeckl Ruprecht, 1992, 1997²).

을 알베르츠 교수가 담당하게 된다. 그의 저서 *Die Exilszeit*는 바로 이 연구 활동의 산물이다. 이곳에서의 연구 성과와 이 책으로 알베르츠 교수는 2003년 윈스터 대학에서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에 이 책은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으며³⁾ 영역본은 *Israel in Exile*의 제목과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C.E.*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영역본의 부제가 뚜렷이 암시해주듯이 포로시대의 역사와 문학에 집중하고 있는 알베르츠 교수의 책은 포로시대에 관한 고전으로 간주되는 아크로이드(P. Ackroyd)의 *Exil and Restoration*⁴⁾에 비견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⁵⁾ 영어판 서문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⁶⁾ 아크로이드가 신학적 이념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베르츠는 문학적인 주제에 강조를 둔다. 아크로이드는 “포로 사건”과 “회복”의 두 주제를 다루면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포로 사건을 전(前)역사로 간주하고 따라서 학개와 스가랴를 자세히 다룬다. 반면, 알베르츠는 성서백과 8권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방해 받은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포로기 이후 초기 시대를 고찰한다. 그러나 그는 아크로이드보다 훨씬 더 방대한 본문들을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Die Exilszeit*에는 *Exil and Restoration*이 출판된 이후 35년 동안의 연구 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또 고대 근동의 자료나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크로이드

3) R. Albertz, *Israel in Exile: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Sixth Century B. C. E.*, SBL Studies in Biblical Literature 3 (Atlanta; Leiden, 2003).

4) P. Ackroyd,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C,”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8), ²1976, ³1980.

5) JSOT 26/5 (2002), 38.

6) R. Albertz, “Israel in Exile,” xi-xiii, 즉, “PREFACE TO THE ENGLISH EDITION”을 참고하라.

의 책보다 포로기를 훨씬 더 폭 넓게 다룬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알베르츠의 책은 매 단원마다 앞머리에 참고문헌들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참고문헌의 제목들을 훑어봄으로써 연구 상황을 가늠해보는 재미를 얻을 수 있다. 본문은 두 가지 형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 크기의 단락인데 여기서 저자는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상황을 전해 주면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끌어낸다. 그런 다음 본래의 문단에서 연구사를 통해 나온 입장이 전개된다. 연구사 외에 저자는 지도와 연대표, 도표들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스라엘 종교사』에서 다룬 포로 시대는⁷⁾ 이 책을 통해 더욱 자세히 밝히고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도 한다.

*Biblische Enzyklopädie*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알베르츠 교수의 책도 위의 도식에 따라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글(Einleitung, pp. 11-12)에서 저자는 먼저 시대 구분의 문제를 다룬다. 흔히 포로 시대는 유다가 붕괴된 주전 587/6년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공포된 539년까지로 잡는다. 알베르츠는 이러한 관행과 달리 위로는 1차 포로 사건이 있었던 597년까지, 아래로는 다리우스 1세 시대 대 귀환이 있었던 520년까지 확장하여 포로 시대를 잡는다.

제 1장(“Das biblische Bild der Exilsepoche”, pp. 13-45)에서 저자는 성서가 포로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더듬어본다. 포로시대는 성서의 역사 기록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저자는 그 원인을 일차적으로 정치, 사회, 심리적 상태에서 찾는

7) R. Albertz,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n Zeit. Band 2: Vom Exil bis zu den Makkabäern*, 375-459.

다. 그러나 포로 사건에 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매우 간략히 기록되거나 뒤늦게서야 신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무엇보다도 신학적 가치 평가에서 찾는다. 그래서 성서가 제시하는 포로시대의 상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9-43장과 열왕기하, 역대기하 36장에 나타난 포로시대에 관한 신학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pp. 13-22). 이 개념에 따라 저자는 후대에 구성된 외경의 자료들(수산나와 “벨과 용”, 제 3에스드라 3-5장, 토빗서, 유딧서)과 역사적 성찰에 관한 목시문학(다니엘 이야기)을 고찰하고(pp. 23-45) 이를 통해 포로시대의 공백을 채운다.

제 2장(“Die Geschichte der Exilsepoche”, pp. 46-116)에서는 포로시대에 관한 성서나 성서 외의 빈약한 자료 상황 때문에 “암흑기”로 정의되는 포로시대의 정치, 사회사가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 저자는 먼저 신바벨론 제국(주전 626-539년)의 역사를 발흥에서 멸망까지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시대(주전 605-562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알베르츠는 앗수르의 멸망과 신바벨론의 건국을 산헤립의 종교적 독신 행위(689년)로 기인시키는 바벨론의 역사 신학적 해석을 관찰하면서 이 노선에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에 가한 가공할만한 만행을 고찰한다. 이러한 해석은 완전히 새로운 면일 것이다. 바벨론 제국의 역사에 이어 알베르츠 교수는 포로시대에 관한 성서 기록의 파편들을 모아 성서 외의 자료와 고고학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성서의 상이한 보도들을 신바벨론 제국의 연대기와 비교, 분석하고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 핀켈슈타인(I. Finkelstein)의 인구 통계학적 고찰(pp. 73-80)을 받아들여 포로 사건의 연대와 규모를 확정하고 전쟁과 포로 사건으로 말미암은 유다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낸다. 이러한 과정은 저자가 자료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며 또 포로시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유

다는 세 차례의 포로 사건(주전 597, 587, 582년)을 겪었으며(pp. 68-73) 주전 600-580년 사이에 백성의 절반을 잃어 인구 약 사만 명의 규모로 축소되었다(pp. 73-80). 알베르츠가 내놓은 구체적인 수치들은 포로사건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포로 사건의 연대와 그 규모를 확정한 후 저자는 포로사건으로 해체된 이스라엘의 세 공동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pp. 81-97). 유다, 바벨론, 이집트로 흩어진 이스라엘은 각기 서로 다른 포로시대를 경험한다. 여기서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상실을 의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붕괴와 포로사건 직후 유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알베르츠의 통찰은 놀랍고 신선하기까지 하다. 나아가 저자는 성서에 단 몇 줄로 보도된 여호야킨의 수금(囚禁)과 복권에 대한 원인 및 배경과 그의 바벨론에서의 삶에 대하여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듯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몇 번이나 저자의 탁월한 분석력과 학문적 상상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알베르츠는 포로시대를 페르시아 시대 초기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고레스에서 다리우스 1세까지의 시대(주전 538-520년)까지 다룬다(pp. 98-102). 저자는 귀환과 성전 재건의 문제도 바로 이 시대적 배경 아래 고찰하고 있다. 알베르츠는 “성전 재건이나 귀환 운동은 고레스가 아니라 행정과 조세 제도를 개혁한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일어났으며, 그것은 그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어둠에 가려져 있던 다리우스 1세 시대 또한 선명하게 드러난다. 알베르츠는 이스라엘이 포로시대에 겪은 사회사적인 변화와 그것이 종교에 미친 영향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구성된 포로시대의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척 흥미진진하다. 그가 재구성한 6세기는 전문가는 물론 포로시대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포로 시대의 작품을 다루는 제 3장(“Die Littrature der Exilszeit”, pp. 117-323)에 저자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암흑기”였고 위기와 상실을 의미했던 포로시대에 다양한 저작 집단이 출현하고 문학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문예 부흥” 시기였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원에서 저자는 포로시대 작품의 저작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약학계에서 포로시대의 것으로 확정된 것과 그럴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전부 다룬다.

저자는 먼저 포로시대에 전형적으로 사용된 문학 장르들을 살펴본다(pp. 117-162). 포로시대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포로시대에 변형된 중요한 장르로서 백성 탄식시, 도성 멸망시, 구원 말씀, 이방 민족 말씀, 설교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포로시대의 것으로 간주되는 작품들, 즉, ‘네 예언서’(호세아, 아모스, 미가, 스바냐), 하박국, 족장사, 신명기적 역사서, 예레미야, 에스겔, 제 2이사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자세히 주석한다.

“네 예언서”는 노갈스키(J. Nogalski)와 샤프트(A. Schar)의 편집가설로 후대 열두 예언서의 기본층을 이룬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편집가설을 받아들여 “네 예언서”가 550년 이후 유다에서 생성되었다고 본다. 반면 하박국서는 포로시대 후반기, 즉 다리우스 1세기 초(522/21년)에 바벨론에서 첫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pp. 185-191).

“족장사”는 지금까지 문서 가설에 따라 관찰되었다. 이와는 달리 알베르츠 교수는 이를 두 개의 판본으로 구별하고 이들을 역사적 배경 아래 주석 한다(pp. 191-209). 그에 따르면 두 판본은 모두 바벨론에서 형성된 것으로 제 1판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주제로 포로 공동체의 귀환을 변호하고, 제 2판은 디아스포라 실존을 수용한 것으로 디아스포라 주제를 보충하고 이주 허락과 번식 약속으로 통합되어 있다.

신명기적 역사서에 대하여(pp. 210-231) 저자는 이 역사서의 형성에 관한 ‘층 모델’이나 ‘블록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틴 노트처럼 통일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신명기적 편집 이후의 보충”(nachdr.)이 있다고 간주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포로기 이전에 존재한 “종교 민족주의자 집단”이다(pp. 214-215). 그 책은 국가의 와해를 소화하고 국가 제의와 다윗 왕조의 부활을 위해 저작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p. 219 도표 참조).

저자는 예레미야서는 세 차례 강한 신명기적 편집을 겪었다고 한다(pp. 231-260). 예레미야서는 유다에서 주전 550년 경, 주전 545-540년과 주전 525-520년 사이에 생성되었으며(p. 242의 도표 참고) 성전과 왕조에 대한 거부로 책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에스겔서는 주전 545-515년 사이에 저작되었으며 문학적으로 통일성을 띠고 있고 에스겔 학파는 백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갱신할 것을 다룬다(p. 271).

알베르츠는 제 2이사야서도 두 개의 판본으로 구분한다(pp. 283-323). 제 1 판(40:1-52:12*)은⁸⁾ 다리우스 1세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간주하면서 고레스 시대에 선포된 구원 약속이 수정되고 새로운 약속으로 보충된 것으로 주전 521년 경에 예루살렘에서 형성된 기본층이다. 제 1판이 6세기 말 5세기 초에 시온을 강조하며 편집되어 55장까지 확장된다. 제 2판(40:1-55:13)도 예루살렘에서 형성된다. 저자는 제 2이사야서 배후에 예언자 집단이 있으며 그들은 과거 종교 민족적인 집단과 유사하다고 본다.

포로시대에 형성된 광범한 작품을 다루는 3장은 읽기가 쉽지 않다. 내용보다는 한 본문 또는 한 절 안에 두 판본 내지 세 판본이

8) “*”은 본문 비평 기호이다.

존재할 수 있으므로 히브리 성경을 옆에 갖다 놓고 확인하지 않고는 죽 읽어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가신 일을 요구하는 만큼 정독한다면 독자는 많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제 4장(“Theologischer Ertrag”, pp. 324-332)에서 저자는 포로 시대를 이스라엘이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가장 감동적으로 환영받은 시기이자, 이스라엘의 단일신론과 세계 선교 사상,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낳은 가장 생산적인 시기로 평가한다. 겨우 여덟 쪽을 할애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시대에서 얻은 결론에 기초하여 현대 독자에게, 특히 독일인에게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 그는 독일의 죄 된 과거 역사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그 후유증이 완전히 극복되는 데는 2-3세대가 걸린다고 말한다. 마지막 장에서 독자는 신학자로서의 알베르츠 교수가 지닌 학자적 책임감과 사회 참여 정신에 진한 감동을 느끼며 한참동안 책장을 덮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독일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 당시 고백 교회의 젊은 목사였고 가장 격동기였던 60년대에는 베를린 시장이었던 그의 부친 하인리히 알베르츠(Heinrich Albertz)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알베르츠의 *Die Exilszeit*는 포로 시대를 매우 포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독일, 영국, 미국 등 최근의 연구 상황에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이 책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가 풍성히 스케치되어 있어 우리에게 현재의 연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포로시대의 작품 배후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열어본다면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